



포토 > 사회 > 일반

벨기에 왕비 안내하는 송상현 회장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입력 2019-03-27 16:00:00 | 수정 2019.03.27 15:56:30



마틸드 벨기에 왕비와 송상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 열린 '벨기에 마틸드 왕비 참석 청소년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민 방한 중인 마틸드 왕비는 이날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국 청소년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2019.3.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